가을바람 타고 '女女女'

'여우'들이 돌아왔다

가을바람을 타고 여배우들이 돌아온다.

'추격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강철중' 등 2008년 화제작들은 대부분 남자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다. '님은 먼곳에'의 수애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여배우들이 영화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도연, 김혜수, 손예진 등 충무로가 가장 주목하는 배우들의 컴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밀양'으로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은 9월 마지막 주 개봉하는 '멋진 하루'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김지수 주연의 '여자, 정혜'를 통해 섬세한 감각을 보여준 이윤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멋진 하루'는 직업도, 애인도 없이 서른을 넘긴 노처녀가 옛 남자친구를 만나 하루 동안 함께 하며 겪게되는 엉뚱한 모험과 미묘한 감정을 그린 영화다.

전도연 '멋진 하루'로 … 김혜수·손예진도 컴백

전도연은 이 작품에서 서른 살 백수 노처녀 캐릭터를 맡았으며 상대 배우로는 올 상반기 최고 히트작인 '추격자'를 통해 충무로가 가장 기대하는 배우로 떠오른 하정우가 출연한다.

영화 '비무장지대'의 소매치기, 드라마 '스포트라이트'의 사회부 기자 등을 맡아 다양하게 변신하며 여배우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예진도 다시 영화로 돌아온다.

제 2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박현욱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아내가 결혼했다'를 통해 컴백하는 손예진은 이 작품에서 엄연한 현 남편을 두고도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주인공 '인아' 역을 맡아 김주혁과 호흡을 맞춘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의 정윤수 감독 작품으로 파격적인 설정과 축구를 주 소재로 한 스토리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소설이다.

'타짜'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김혜수는 '열한번째 엄마'에 이어 '모던보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이지형의 소설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를 원작으로 한 '모던보이'는 식민지 시대였던 1930년대 경성이 배경인 영화로 김혜수는 정체불명의 여성 조난실 역을 맡았다.

'해피엔드', '사랑니' 등을 통해 인정받은 정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기대감을 높이며 조난실에 목 매는 남자 주인공 이해명 역으로는 연기파 배우 박해일이 출연한다.

'궁녀'를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박진희는 로맨틱 코미디물 '기억, 상실의 시대'로 돌아온다. 이 영화에서 박진희는 우연히 다시 만난 첫사랑의 차에 살짝 부딪치자 기억상실에 걸린 척하며 그의 집에 눌러앉아 사기 행각을 펼치는 노처녀 지호 역을 맡아 조한선과 호흡을 맞춘다.

또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후 활동이 뜸했던 이나영은 김기덕 감독의 '비몽'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배우 오다기리 죠의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은 '비몽'은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나영은 몽유병 증세를 가진 여자로 출연한다.

그밖에 최근 할리우드 진출로 화제가 됐던 강혜정은 은퇴를 앞둔 전문 킬러가 의뢰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 '킬미'에서 신현준과 호흡을 맞춘다. 신민아 역시 조승우와 함께 출연한 '고고 70'에서 댄서 미미 역을 맡아 10월 관객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혜수

전도연

손예진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장강 7호	주성치가 만든 어린이영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부자에게 뜻 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을 다룬 공포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다크나이트	배트맨 시리즈의 하나로 고인이 된 히스 레저가 악당 조커 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슈퍼 히어로	이번엔 날지 못하는 슈퍼 잠자리맨이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스마트 피플	로맨틱 가족 코미디. 까칠한 성격을 소유한 남자의 사랑이야기를 그렸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다찌마와 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코믹 액션극으로 우스꽝스러운 대사가 압권이다.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엑스파일 -나는 믿고 싶다	TV 드라마로 제작돼 화제가 됐던 작품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등장하는 미스터리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아기와 나	졸지에 아기를 키우게 된 고등학교 남학생 이야기로 장근석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탁재훈, 예지원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0년지기 우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엔터	
고사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죽게되는 시험을 소재로 한 공포물로 이범수, 김규리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케로로 더 무비-케로로 VS 케로로 천공대결전	개구리 중사 케로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원조 케로로와 다크 케로로가 대결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주목! 이 영화

'스마트 피플'

진정한 소통과 사랑… 로맨틱 가족 코미디

자신밖에 모르는 부녀(父女)가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가족 코미디물.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로렌스는 자신밖에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다. 15년 전 아내를 잃고 멘사 회원일 만큼 명석한 딸 바네사와 함께 살고 있는 로렌스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렀다 10년전 자신에게 C 학점을 받았던 제자 자넷을 만난다.

곧이어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로렌스 때문에 첫만남은 실패로 끝난다.

여기에 공부밖에 모르는 조카 바네사에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삼촌 척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 굿 컴퍼니' 등에서 열연했던 데니스 퀘이드, '주노'에서 상큼한 연기를 보여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던 스물 한살의 배우 엘렌 페이지,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라 제시카 파커 등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